

《민들레는 장미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글_심범섭 문화사랑방 인서점 대표

야생초 화단은 근래 생태, 환경, 야생화 이야기가 나올 때 으레 등장하는 화두다. 그러나 어이 없게도 ‘야생초 화단’이란 예쁜 말은 높은 철창 속 어두운 감옥의 한 구석에서 짝이 뒀다. 한 장 기수가 마음을 달래기 위해 가꾸어 놓은 손바닥만한 야생초 밭에서 비롯된 말이다. 수년 전, 그가 세상에 띄워 보낸 《야생초 편지》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동이었던가.

감옥 안에 그 야생초 화단을 꾸며던 인물 황대권이 이번에 새로 낸 《민들레는 장미를 부러워하지 않는다》라는 책을 읽으면서 평자는, 정작 그 야생초와 야생화의 잘 익은 열매를 이제야 《야생초 편지》의 저자가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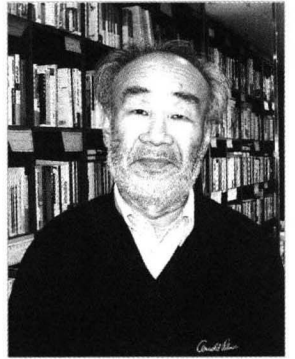
스스로 살아가는 세상의 아름다움

저만치 떨어져 있는 우리에게서 방치된 공간, 그 도시의 빈 공간, 사람들의 손길이 가지 않는 곳에서도 야생초는 자라고 또 꽃을 피운다. 야생초는 자신의 존재적 이유를 아무에게도 들어내지 않는다. 잘난 체 하거나 못난 체 하지도 않는다. 다만 햇살과 바람이 찾아와서 속삭이는 그런 세상이다. 그들은 스스로를 사랑하고 스스로를 가꾸면서 스스로의 삶을 거기에 펼쳐 낸다.

어느 봄날, 그 스스로의 세상에 숙이 아버지가 장미를 심었다. 그리고 날마다 물을 주면서 보살피 주었다. 장미는 이내 화려한 꽃을 피운다. 그 옆을 살고 있는 야생초에게 장미가 말한다. “애 너는 왜 그렇게 키가 작고 못생겼니?” 그러나 그 후 숙이네가 여름휴가를 떠나자 장미는 볼품없이 시들었고 장미의 업신여김을 받던 민들레, 지칭개, 애기똥풀, 냉이, 꼬들빼기는 폭염에 시들어 가는 장미 옆에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조잘대는 일상을 보낸다. 그것이 ‘야생초의 힘’ 이고 ‘자생의 힘’ 이고 ‘자연의 힘’ 이고 ‘생명의 힘’ 이다. 인간은 스스로 살아가는 자연의 생존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래서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함께 어울려 사는 ‘공생의 법칙’ 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늘과 땅과 사람이 어울려 사는 것만이 절망에 빠진 인간을 구원할 것이다.”

하늘과 땅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삶의 방식’ 찾아야

문명이라는 옷을 입고부터 우리는 자연과 멀어지는 삶의 방식을 좇는다. 그러면서 편리함을 좇아 문명이 제작해내는 삶의 방식을 따라가지만, 우리는 결국 자본주의적 상품문화의 견고한 구조물속으로 빠져들어 그 시장의 소비자가 될 뿐이다. 그러다가 문득 떠나온 고향이 그리우면 작은 꽃밭을 만들고 벽에 사진을 붙이고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감상하고 영화를 보고 여행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잠시의 위로 뒤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또 다른 시장 판 위에 서있음을 발견하게 되고 거기서 자본주의에 포박된 우리의 자화상과 만나게 된다. 그렇다면 야생초 화단에서 시들어 가던 저 장미의 운명과 우리가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저자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인간의 미래는 절망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차버린 자연과 하늘을 찾아 나서야 한다고 했다.



● 이 글을 쓴 심범섭은 건국대학교 앞에서 문화사랑방 인사점을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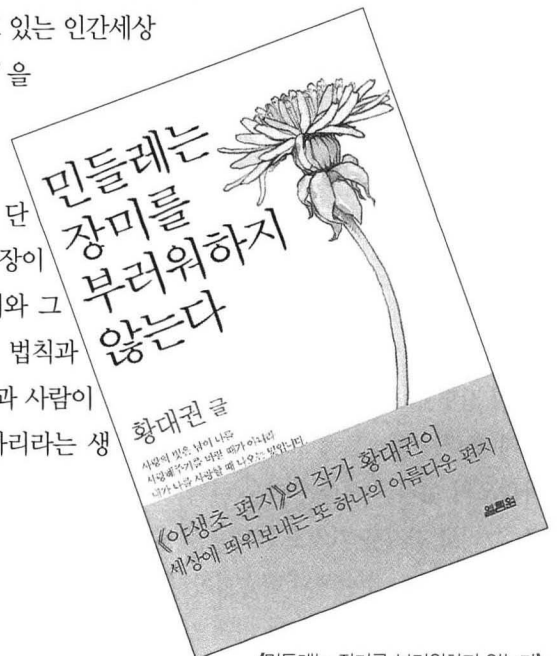
그러나...저자 황대권님은

시골 할아버지의 구수한 말로, 자연은 물론 세상의 모든 일까지 '님'의 칭호를 붙이자며 풀 한 포기 별레 한 마리에까지 '인간의 품격'과 '사랑'이 부여돼야 한다며 극단의 생명존중사상으로 나가고 있다. 그러나 매일같이 생명을 잡아먹어야 생존하는 생명들, 아니 나의 악마적 생존의 본질을 도외시하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위선일 수밖에 없다. 그렇잖아도 '만물의 영장'이라는 오만한 인식으로 자연은 물론 지구와 우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정복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파괴해 나가는 현실에서, 이를 지적하고 인간의 지속적인 생존이 가능한 좌표가 자연의 품안에 있음을 설파하고자 하는 환경과 생태운동의 논리적 모순이 정당성을 제대로 확보해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야생초 화단'이라는 뜻밖의 화두로 그리고 이번의 '민들레...'가 이루어 놓은 적잖은 이념적 성찰의 성과를 저자 스스로의 이런 과도한 논리로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사실 제대로 된 눈으로 자연을 바라보면 꽃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다만 식물의 '생식기관'일 뿐이며, 자연은 단지 생존의 처절한 전쟁터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나아가 자연의 법칙이 생존을 위해 너를 죽이고 또 그것을 먹이로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윤리의 근거임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필자는 자연의 약육강식의 '생태질서'가 보여주고 있는 생명의 자중자애를 '인간끼리'의 존엄성 이해의 장으로 그리고 '야생초'가 보여주고 있는 '자생력'과 '평등'한 질서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간세상의 '사회적 관계'로 끌어들여 '민중의 삶'을 이해하고 증진하는 논리로 환원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렇게 되면, 신자유주의 시장논리에 의해 단지 지식을 가진 무서운 동물의 약육강식장이 된 오늘의 사회현실에서 인간의 생존논리와 그리고 무엇보다 민중의 저항논리를 자연의 법칙과 충돌하지 않으면서 확보하면서 하늘과 땅과 사람이 어울리는 논리의 반전과 가치관을 확립하리라는 생각이다. *******



《민들레는 장미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황대권 지음 | 열림원 | 231쪽 | 값 9,000원